

‘차갑게 즐기는 캐주얼 레드 와인’

블루넨 칠 레드 블렌드

BLUE NUN CHILL RED BLEND



지역	독일 > 팔츠		
포도품종	돈펠더 100%		
알코올	11%	용량	750ml
등급	QbA	시음 적정 온도	8~10℃
테이스팅 노트	다크 레드 컬러의 돈펠더 와인으로, 잘 익은 레드베리와 체리의 풍부한 과실 향에 부드러운 타닌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밸런스를 이룬다.		
페어링 TIP	흰 육류 / 채소(샐러드) / 부드러운 치즈 /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 디저트		



제품설명



칠링해서 마시는 레드 와인으로, 캐주얼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와인이다. 풍부한 과실 향이 특징이며, 일반 레드 와인보다 낮은 알코올 도수(11%)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다.

시음에 적절한 온도(8 - 10℃)로 칠링되면 전면 라벨의 배경 색상이 변해 마시기 좋은 온도를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와이너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넨은 지셀 존에 의해 1921년 설립되었다. 1995년 랑구스 사와 합병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블루넨은 더욱 모던하고 상급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이 되었다. 블루넨은 문자 그대로 '푸른 옷을 입은 수녀'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와인은 성스러운 장소인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녀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품질의 포도원액과 어울리는 푸른색의 미려한 병모양은 다양한 계층의 와인 애호가들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시켜 왔다. 블루넨의 오랜 역사와 모던한 기풍은 크발리테츠바인에서부터 아이스바인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